

조선시대 100년

조선시대 400년은 조선 역사의 중요한 시기였다. 조선은 이 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조선의 건국 이래로 조선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조선의 문화는 고려후반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조선의 문화는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문화는 동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1880년대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다. 1892년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다.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다.

“조선은 400년 동안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선은 동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19세기 후반 제물포에서 바라본 월미도 동북쪽 촌락

조선은 이 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조선의 건국 이래로 조선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조선의 문화는 고려후반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조선의 문화는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문화는 동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일제강점기 월미도 공원의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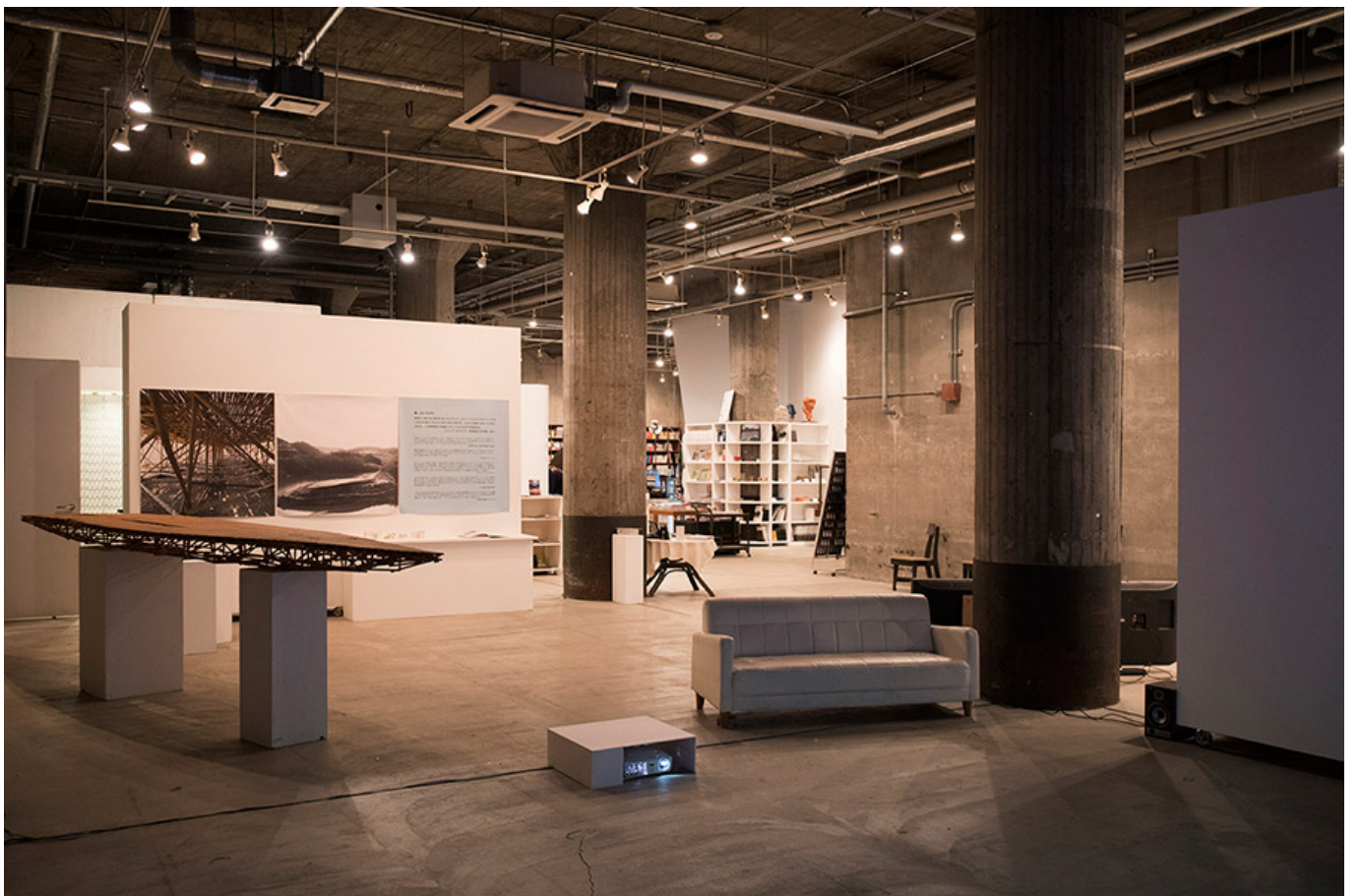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월미도 공원에서 촬영된 사슴의 모습이다. 당시 월미도 공원은 사슴 사육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이 사진은 그 중 하나이다.

출처: 월미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사슴, 월미도

‘사슴 월미도’는 월미도에서 사육된 사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월미도 공원의 사슴 사육 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

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



電車(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

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

電車(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電車(電車)は、この町を走る唯一の公共交通機関です。



富士山を背景に、夕暮の光の中、人々のシルエットが写っています。

夕暮(トワイライト)は、一日の終わりを告げる美しい光景です。富士山(フジ)は、その雄大な姿を背景に、人々のシルエットを浮かび上がらせています。静かな海と、遠くに見える山々のシルエットが、この瞬間を特別な瞬間にしています。

この写真は、自然の美しさと人間の存在を同時に捉えています。夕暮の柔らかな光が、人々の輪郭を優しく照らし出しています。富士山の雄大な姿は、人間の小ささを際立たせています。この瞬間は、静けさと美しさが共存する、特別な瞬間です。

□ □□□ □□ □□ □□□□ □□ □□ □□□□ □□□ □□□.

□□ 3□□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

0000000 0000 00

0 0 0, 00000000 000 000 **2018** 000 0000 000000 000 000000 000000. 0
000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000 00000 0000 000000 000 00 0 00
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00. 0 00 0 0, 0000000 **3.0** 00 **2018** 0
000 0000 00 000 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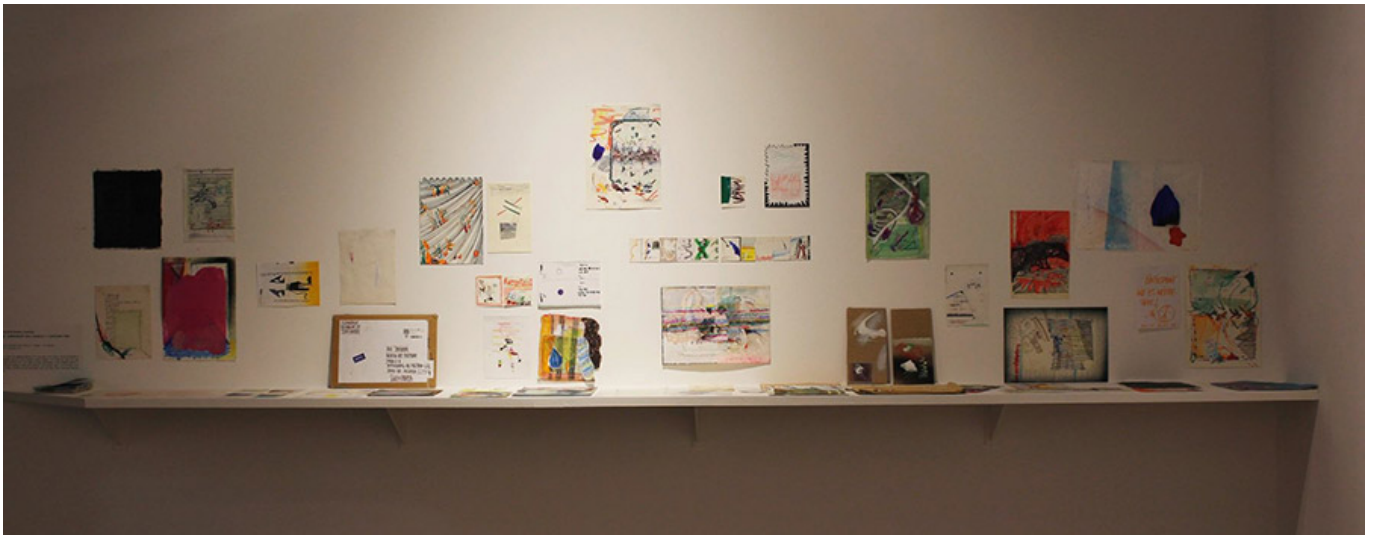
00 0000 00000000 000 0000, 00 00
000000 0000 (Kunstakademie
Muenster)00 0000 000000 0000, 0
0 (Voelker) 000000 000000
0 (Meisterschueler)0 000000. 1000
00 00 0000 000 00, 000 0000 000
00 000 000000. 0 0 000 0000000000
0. 000 00 000 000 00 000 00 00
00 000 00000 000 00 (00 00)0 000

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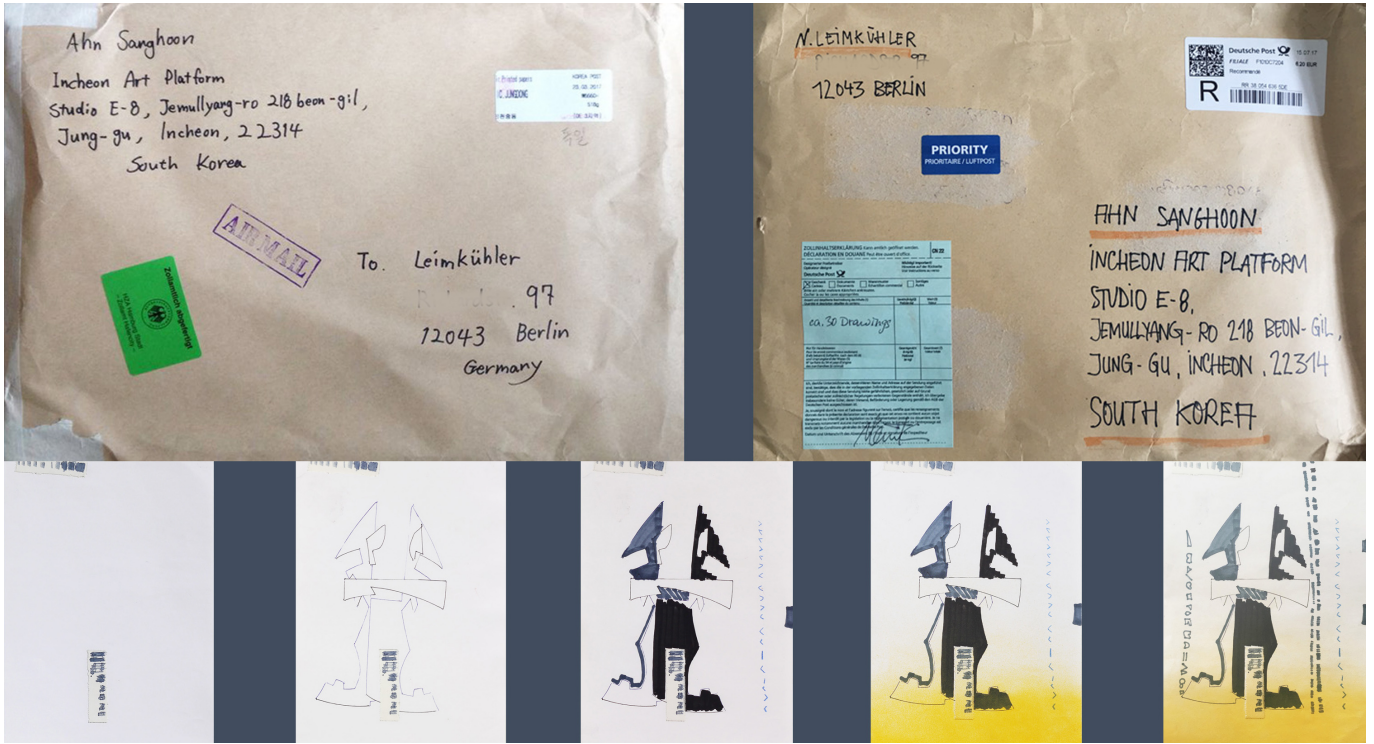


개인전 [GOOD: PAINTING] 전경_페인트 보강비닐 위 혼합재료_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_2017

이 전시의 주요 특징은 벽면에 부착된 다양한 크기의 작품들이다. 작가는 페인트와 보강비닐을 혼합하여 독특한 질감과 색상을 구현했다. 또한, 작품들 사이에 빈 공간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어 관람객의 시선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전시를 통해 작가는 현대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의 언어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전시의 성공은 작가의 독창적인 표현력과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롤링 드로잉_설치전경, 과정_2017



00 000_0000, 00_2017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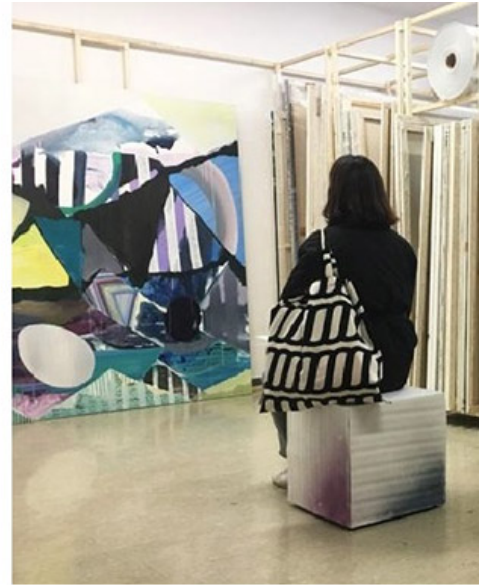
000 000 00 000 000 0000 0000 00 2200 000 000000 000 000 0000 00
 00 <00 000 0000: from the moment you walk through the door
 until the moment you leave> 0000 00. 00 00 0 1000 0 00 000 00
 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 000 000 0000. 00
 000 0000 000000 000 000(0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 00. 00
 0 00(0) 00(00) 00 000 000 000 000000 00, 00 0000 000 0000 00
 0 000 0000 000 0 0 00 000. 00 0000 000 000000 000 00 00 000 000
 0000 0000 0000, 00 00 00 0 000 0000 0000 000 000000 0000 000 00
 0 000 000 000 0000 000000 000 00(00) 000 000.

000000 00 50 120000 000 000000 00000 00000.

이 공간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설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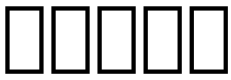
Q. 이 공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A. 이 공간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설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미술관_2017

Q. 이 공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00 1]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

우주이야기 우리의 유일한 이야기 **첫 번째 나를 찾아줘!** **칠동아담** 나를 찾아줘!

인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생활문화 강좌
생활문화 강좌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과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나를 표현하여 새로운 감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ONE FINE DAY CLASS
새로운 감성을 받아들여줘!
• 취미와 관련된 도자기 만들기
• 꽃꽂이/에어리얼
• 향유와 함께 즐기는 차의 시간
• 새끼 고양이 키우기/새끼 새 키우기
• 새 손수레 만들기 등

심리/기초~7월
나를 표현하고 상대와 공명하자!
• 유머와 재능을 위한, 사랑과 재능을 위한
• 코칭을 위한 코칭
• 도덕적 책임감 공유하기
• 부모의 영향력: 청소년의 동기 부여, 유망 분야
• 일과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 인성교육

이벤트/8~10월
감정을 표현해보자!
•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4가지 방법
• 나의 감정 색깔이 어떻게
• 일과가 아닌, 휴식과 즐거운 놀이
• 일과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 감정의 시간

날짜	시간	강사	강좌명	신청비	장소
5/25일 (목)	14:00-16:00	이종 다목적실	우정가족 도자기 만들기	이천준 10	
5/27일 (금)	14:00-16:00	이종 다목적실의 아뜰리	드림! 아뜰리 놀이	김유진 10	
5/29일 (토)	14:00-16:00	이종 다목적실의 아뜰리	어디와 함께 행복하는 시간	김유진 10	
5/22일 (금)	10:00-12:00	이종 다목적실	새 나뭇잎이 올라오면 ~새로운 재능교양	이윤진 50	
5/26일 (일)	14:00-16:00	이종 다목적실의 아뜰리	내 손으로 만드는 부케	김유진 10	

Att Ensemble
In Side Out CONCERT
따뜻한 봄날 밤의 예술
나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위운 클래식 이야기

5월 매주 수요일 19:30
with 인천생활문화센터 '칠동아담'

5월 2일 (목) 고니이는 가봉
5월 9일 (목) 리아의 신비
5월 16일 (목) 일과 다 할 수 없는 슬픈 일부터
5월 23일 (목) LQ (Love Quotient-사랑지수)놀이
5월 30일 (목) 소리 습합!

인천문화재단 | 후원기관: <http://www.fcc.or.kr/010-780-8322> | 후원전화: 010-780-8322, 1577

000000(00: 000)0 0000 0000000 0000000 “000 000 000: 00 000”00 00 0 000 000 00 00000 00000. “000 000 000: 00 000”0 00 000 000 000 0000, 0 000 000 000 0000 00000 00000 000 0000 00000 00000. 00 000 00(50~70)0 000 00(80~100)0 0000. 00 000 0000000000 0000000 00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 <0000 00000 00, 00000 00000 00>0 00 00, 00, 00 0 000 00000 00000 00000. 0 00000 000 000 00000 000 000 00000 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atti)’ 00000 00000 <In Side Out Concert> 0000 0000 00 00 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 0000 00 0000 0000 0. <00000 00000 0000 00000>0 0000 00, 00000, 00000 0 000000 0000 00000. <0000 000000 00000 00 00! 00 00>0 00 ‘00’0 0000 0000 00 0000 00000. <0 00 00000 000000>0 00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0. <0000 0000000>0 00 0000 00 000000 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 0000 <One Fine Day Class>0 00000. 50 00 <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 <0000 00000 00 00 00- 0000 00 00 00>, <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00>0 00 00000.

0000 00000 00 00 0000 000(80~100)0 00000. 0000 00000 00 00 <00000 0000 0 0000 00000>00 0000 00, 00000, 000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0□□□□
 □□□□ □□□, □□□ □□□□□□ □□□. □□□ □□□ □□□□□□ □□□□(□□□□▶) □□ □□□□□□
 □□ □□□□(□□□□▶)□□ □□□ □ □□. □□□ □□□□□□ □□□□□□(032-760-1032,
 1037)□□ □□ □□.

- □ □: (□□□) 2018□ 5□ ~ 7□ / (□□□) 2018□ 8□ ~ 10□
- □ □: □22□ □□, 98□
- □ □: □□□□□□□□ □□□□(□ □□□□□□□□)
- □ □: www.ifac.or.kr/7tong
 4□ 23□□□ □□□ □□□□. □□□ □□
- □ □: □□□□□□ □□□□□□(032-760-1032, 1037)

□□□□□(032-760-1037)

[□□ 2] <□□□□□□ □□□□□> □□□ □□□(2018.4.20.~5.31.)



□□□□□□(□□□□□: □□□)□ □□□□ □□□□□□□ □□□ □□□□□. 4□ 20□□□ □□ 31□□□ □□□

인천역사문화센터,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강화도서관이 함께 하는
2018 인천역사시민대학 :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 강좌
고려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A 강좌(인천)

주제	시대를 빛낸 고려 명품 7선
1강 (5/8)	대장경, 고려인의 염원을 담다 오용섭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강 (5/15)	나전칠기, 눈부시게 찬란한 솜씨 최영숙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인천시 문화재위원
3강 (5/29)	고려청자, 천하제일 고려비색 장남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이화여대 박물관장
4강 (6/5)	금속활자, 당대 최첨단 과학기술 박성진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5강 (6/12)	고려불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 이승희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6강 (6/19)	묘지명, 돌에 새긴 고려인의 일대기 박종기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
7강 (6/26)	고려지(高麗紙), 종주국을 뛰어넘다 이정신 한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일시	5/8(화)~6/26(화),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장소	인천대 미추출캠퍼스 미추출타워 별관 B동 601호

B 강좌(강화)

주제	고려 건국 1100주년, 고려는 어떤 나라였나
1강 (5/3)	1100년 전의 기억, 왕건이 꿈꾼 나라 이영우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
2강 (5/10)	망이 망소이, 세상을 뒤엎자! - 고려 하층민의 생활과 농민항쟁 정요근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3강 (5/17)	이자겸, 그는 역적인가 김보람 기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4강 (5/24)	고려, 더 킹덤 오브 코리아 - 세계가 본 고려, 고려가 본 세계 이진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5강 (5/31)	우만파위의 나라, 고려 이정안 중앙대 국사학과 교수
6강 (6/7)	충선왕, 그의 조국은 어디인가 김순자 한국외국어대 강사
7강 (6/14)	고려 건국 1100주년, 고려는 어떤 나라였나 박종기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
일시	5/3(목)~6/14(목),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장소	강화도서관 시청각실

* 하반기(9~10월)에는 A, B 강좌를 서로 바꾸어 진행합니다.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6일(월) ~ 마감 때까지(신청순 70명)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민
- 참가비 | 없음
- 신청방법 | A 또는 B 강좌 중 한 강좌를 택해 인천역사문화센터에 전화/이메일로 신청
- 문의 | 인천역사시민대학 담당자 032-455-7168, yeunsu1211@ifac.or.kr
- 기타 | - 수강신청 하신 분께는 교재를 드리고, 7강을 모두 수강하신 분께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정원 외 정강 가능하며, 정강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000000(0000 000) 0000000000 000 0000·000000 00 000 0000 00·0
 0 000 000 0000 000 0000 000 000 000 201800 000 <000000000> 000 0000.
 50 3000 60 26000 00 0000 000 00 70~900 000 0000 00 700 0000.

<000000000>0 00 0 0000 000 000 201400 2016000 00 000 <000000000>
 0 <000 0000 0000>0 0000 0000 000 000 00000 00 000 000. 20180 0
 00 <000000000> 0 00 00 1100000 0000 '000 000 00 000' 00 000 000
 0.



► 台灣目前正積極推動 IAP 計畫，請問 IAP 是什麼？

1984 年，美國政府為了協助台灣經濟發展，特別撥款 10 億美元，由美國政府與台灣政府共同管理，這就是 IAP 計畫。10 年來，美國政府一直致力於協助台灣經濟發展，並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

► 請問 IAP 計畫 10 年來，美國政府對台灣 IAP 計畫有何貢獻？

美國政府對台灣 IAP 計畫的貢獻，主要是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包括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以及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此外，美國政府也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以及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

► 請問，美國政府對台灣 IAP 計畫有何貢獻？

美國政府對台灣 IAP 計畫的貢獻，主要是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包括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以及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此外，美國政府也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以及提供台灣政府各項技術支援。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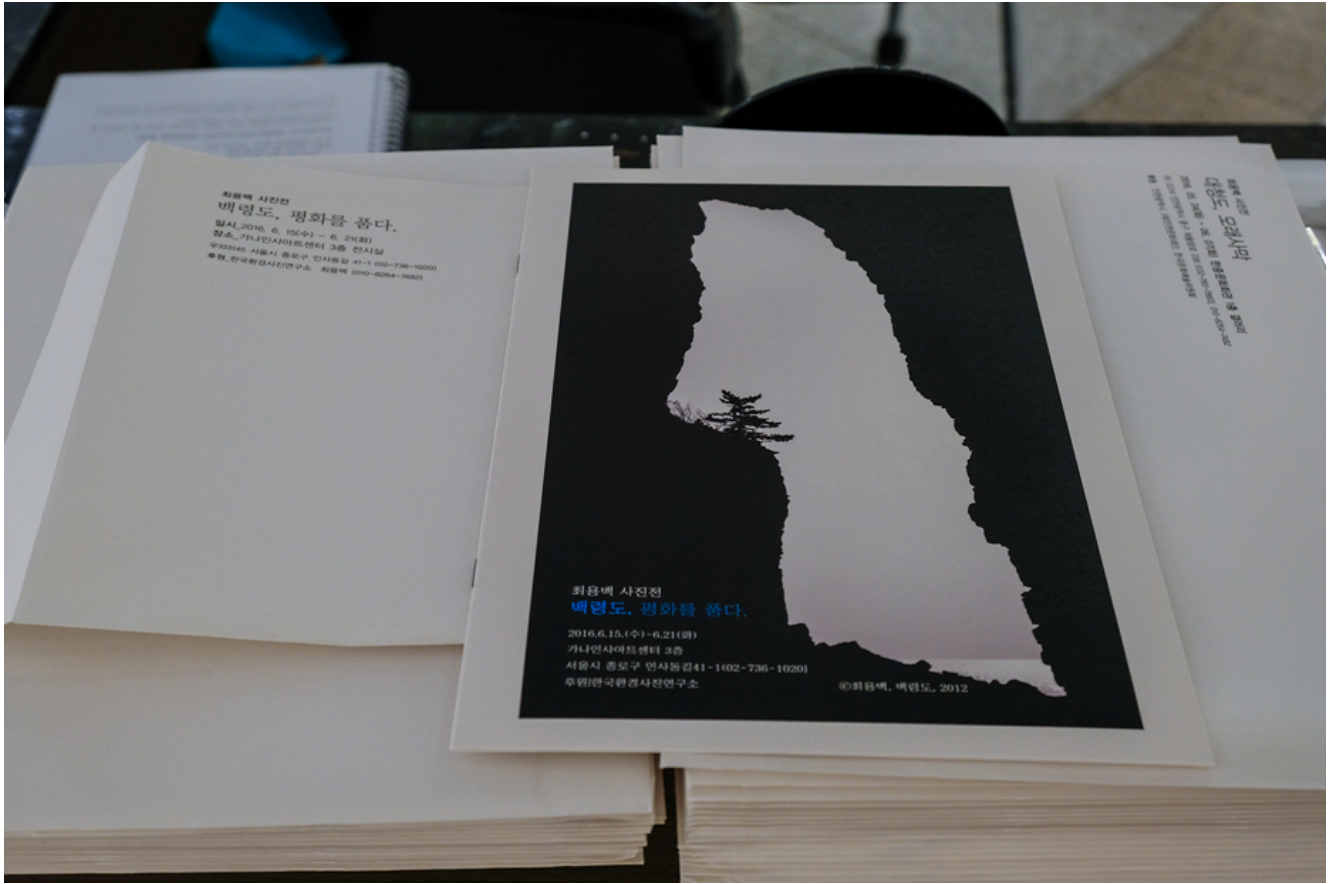
□□□ □□ □□□ (□□ □□□□)
□□ □□□
□□ □□□

□□□□ □□□□ <□□□, □□□□ □□□>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04.14(0) -04.26(0)
00: 00000 000(00000 00 00000238)

인 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 04.13(0), 0060~90
 00: 000000 000000 H0 20

00/00: 000000 00000

00: 0000003.0 000

‘0000000000’ 0000 <0>

00000 0000 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의 28번째 0000 ‘0’



지난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잡'이 열렸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0 40 70 00000000 C0 000000 0000 00 00 000 0000 00 00. 00 4000 000
'0000000000'의 000000 00 00 00000 00 00000 00000 0 00 000.
00000 28000 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 000000
0000. 00 00 00000 0000 000000 0000000 00 00000000 00000000 0000 0000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인형극 사이사이에 타악패와 춤패, 노래패의 공연이 채워지면서 다채로운 재미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 □□. □□□□ □□□ □□□□ □□□□ □□□□. 2□□□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10-1234-5678 / 010-1234-5678 3.0 010-1234-5678
marinboy58@naver.com



<청춘, 그 시절>, <'청춘'의 시절>, <그 '청춘' 시절>, <청춘 시절
 시절.>이 40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청춘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이 시절
 이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이 시절 50년 만에 출간되었다,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청춘'의 이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의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의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청춘'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이,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이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시절 30년 만에 출간 '청춘'의 이 시절 시절 시절.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공연은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공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공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게 되었다.



공연 시작 전 연극 비온새라이브 무대

우리는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공연은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공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공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게 되었다.



사진 출처: 극단 작은 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 사진은 극단 작은 방의 공연 중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배우는 selfie 스틱을 들고 웃고 있으며, 왼쪽에 있는 배우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배우는 붉은색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배경에는 여러 개의 의자가 놓여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노란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어둡고 집중된 조명 아래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3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어떤 어떤 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_□□□□▶)